

미래세대가 그리는 숲, 기후 위기 속 희망을 담다!

- 산림청 '제35회 전국 청소년 숲사랑 작품공모전' 개최-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1일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제35회 전국 청소년 숲사랑 작품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5회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단순한 예술 활동을 넘어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숲과 환경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지켜나가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 주제는 △숲·환경·생명의 아름다움과 소중함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산불, 산사태 예방과 목재의 지속 가능한 활용 등)이며, 공모 부문은 그림·글짓기·웹툰·숏츠 등 4개 부문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그림·글짓기 부문에 더해 청소년들이 친숙하게 활용하는 디지털 형식의 웹툰과 숏츠 부문을 신설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혔다.

제출된 작품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대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2명) △최우수상(산림청장상 18명) △우수상(서울시·대전시·경기도·강원도·전라북도·경상북도 교육감상 21명) 등 모두 200점을 선정해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7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누리집(www.greenranger.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숲사랑청소년단(02-968-0868~9)에 문의하면 된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공모전은 단순한 작품 응모를 넘어, 청소년들이 숲을 바라보며 자연의 숨결과 생명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작품을 통한 청소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기후 위기 극복은 물론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림복지국 산림복지교육과	책임자	과 장	김인천 (042-481-4210)
		담당자	사무관	김일숙 (042-481-8869)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